

#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윤지원<sup>1</sup> · 박영주<sup>2</sup>

<sup>1</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sup>2</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Effects of a Breast 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Working Women

Yoon, Ji-Won<sup>1</sup> · Park, Young-Joo<sup>2</sup>

<sup>1</sup>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s of a breast 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working women on breast feeding continuation, mother-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i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repeated measure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reast feeding continuation between two groups at each time point except 2 days and 1 week after delivery. The scores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of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Although some modifications in contents and administration will be requir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reast 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working women can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facilitate breast feeding continuation and mother-infant relationships.

**Key words:** Working women, Breast feeding, Mother-infant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모유수유는 어머니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건강증진적이며, 질병예방적인 활동으로서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수유방법이다. 또한 이는 아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하고 건강한 인격과 미래의 삶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수유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ger & Olds, 1999).

아기가 최초로 형성하는 의미 있고 밀접한 인간관계인 모아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써 이러한 과정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Shin, Park, & Kang, 2004). 그 중 산욕 초기 모아접촉은 모아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애착 형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Ahn & Kim, 2005; Sung, 2005),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laus & Kennell, 1982). 모아 간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유상황 역시 모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모아는 빈번한 신체접촉을 통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아기는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발달에 필요한 관계를 습득하게 되며(Symanski, 1992), 어머니는 아기의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Taylor, 1981). 이처럼 모유수유는 산욕초기 모아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해 모아애착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모성역할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취업모, 모유수유, 모아애착, 모성민감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Ji-Won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Anam-dong 5 ga, Seongbuk-gu, Seoul 137-705, Korea  
Tel: 82-2-3290-4751 Fax: 82-2-927-4676 E-mail: dumom@hanmail.net

투고일 : 2008년 7월 1일 심사위원회 : 2008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10일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여성 취업의 증가, 특히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증가는 대안적 노동력군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모유수유를 감소나 과거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이러한 모아격리 및 타인 양육경험이 모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모유수유 장애요인 중 하나이며(Taveras et al., 2003; Yeo, 2007) 양육행동이나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eo, 2006). 또한 영아기 수유방식은 모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인공수유하는 산모의 경우 모유수유하는 산모에 비해 모아애착이나 모성역할 자신감 정도가 낮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Choi, Cho, & Ju, 2006; Lee & Kwon, 2006).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영아 초기 타인 양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성격리 모델이나 양육의 질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Jaeger & Weinraub, 1990). 모성격리 모델은 영아 초기 타인 양육경험이 영아에게 모성격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서 3세 이전 어머니로부터의 격리는 아동의 정서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이 된다는 주장이나(Bowlby, 1977),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모아 간의 격리 경험 이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Belsky & Rovine, 1988)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양육의 질 모델은 타인 양육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모아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차례로 영아발달에 영향한다고 설명하는 모델로서 타인 양육에도 불구하고 모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안정애착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Ainsworth, 1989; Isabella & Belsky, 1991; Koc-hanska, 1998; Yang, 2000)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모유수유를 감소 및 생후 초기 타인 양육경험은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안정적인 모아애착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모아의 건강한 상호관계 수립을 통한 애착 형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관계 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취업모를 위한 모아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 직장

에 복귀할 예정인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행위 증진을 통해 모아상호관계 및 모아애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지속과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모유수유 및 모아관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자 실시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지속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아애착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넷째,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성민감성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

모유수유에 관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및 생리적/정서적 각성상태를 자원으로 하여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Dennis, 1999), 본 연구에서는 산후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1일부터 직장복귀 후 3주까지 산모의 모유수유 자기효능자원을 강화함으로써 모유수유행위를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모유수유지속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직전 24시간 동안의 모유수유율 및 모유수유단계를 의미한다.

### 3) 모아애착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인 관계로서(Ainsworth, 1989), 본 연구에서는 Müller (1994)가 고안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Han (2002)이 변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모성민감성

영아의 신호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능력과 자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Ainsworth, 1989), 본 연구에서는 여러 도구와 문헌을 토대로 Han (2002)이 재구성한 모성민감성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상 사전조사 없이 프로그램 적용 후 두 군 간의 모아애착과 모성민감성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적용으로 인한 시점 간, 시점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험이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완전효과를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지속, 모아애착,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측정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repeated measures)의 유사실험연구이다(Figure 1).

###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모유수유와 관련된 치료적 환경 및 규모가 유사한 3개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로서 상호 정보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1개 병원은 실험군으로, 다른 2개 병원은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태기간 37주 이상, 출생 후 정상 신생아실에 입원 중이며, 출생 시 합병증이 없고, 모유수유 금기사항이 없는 아기와 이전에

모유수유경험이 없고, 임신 중이나 분만 후 의학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며, 모유수유를 하기로 한 산모로 직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분만 후 3개월경에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산모.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모아동실여부, 모아의 건강상태 및 이전의 모유수유 경험이 모유수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본 연구 기간 동안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산모와 아기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크기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alpha=0.05$ ,  $1-\beta=0.8$ ,  $d=0.8$ 일 때  $n=25$ 이므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 총 50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다. 중도탈락자를 감안하여 실험군 32명, 대조군 31명 총 6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아기의 질환(실험군 1명/대조군 2명), 전화연락 안 됨(실험군 4명/대조군 2명), 설문지 미발송(실험군 2명/대조군 3명), 사직(대조군 1명), 육아 휴직 연장(실험군 3명) 등의 사유로 탈락하여 분만 4주 후에는 실험군 27명, 대조군 24명이었으며, 최종 조사시점인 직장복귀 4주 후에는 실험군 22명(최종 탈락률: 31.2%), 대조군 23명(25.8%)이 최종 대상자가 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모유수유지속

##### (1) 모유수유율

조사 직전 24시간 동안 섭취한 총 수유량 중 모유수유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 (2) 모유수유단계

조사 직전 24시간 동안 섭취한 총 수유량 중 모유수유량을 세계모유수유자료은행(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의 모유수유단계를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Group	Pre-intervention			Intervention			Post- intervention		
		pp 1 day	pp 2 day	pp 1 week	pp 4 weeks	pp 7 weeks	pp 10 weeks	pr 1 week	pr 3 weeks	pr 4 weeks
Treatment	Exp.	X <sub>1</sub>	X <sub>1</sub>	X <sub>1</sub>	–	–	–	–	X <sub>1</sub>	
	Cont.	X <sub>2</sub>								
Outcome variables	Exp.	O <sub>1</sub>	O <sub>2</sub>	O <sub>3</sub>	–	–	–	O <sub>3</sub>		O <sub>4</sub>
	Cont.	O <sub>1</sub>	O <sub>2</sub>	O <sub>3</sub>	–	–	–	O <sub>3</sub>		O <sub>4</sub>

Figure 1. Research desig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p=postpartum; pr=after returning to work; X<sub>1</sub>=breast 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working women; X<sub>2</sub>=breast feeding education program; O<sub>1</sub>=general, obstetric, occupational, and breast feeding characteristics (face-to-face); O<sub>2</sub>=breast feeding continuation (face-to-face); O<sub>3</sub>=breast feeding continuation (telephone); O<sub>4</sub>=breast feeding continuation, mother-infant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mail).

한 값을 사용하였다. I단계는 완전모유수유, II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많이, III단계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같은 정도로, IV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적게, V단계는 모유수유가 10% 이하, VI단계는 완전분유수유를 의미하며 이 중 II-V단계는 부분모유수유에 해당한다.

## 2) 모아애착

Müller (1994)가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애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모성애착조사표를 Han (2002)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총 26문항의 모아애착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3) 모성민감성

기존의 관련 도구와 문헌을 토대로 Han (2002)이 재구성한 총 36문항의 모성민감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민감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4. 연구 진행 절차

## 1) 프로그램 개발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취업모의 모유수유관련 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모유수유관련 사이트 중 한국 모유수유정보센터 내 모유수유 정보신문(www.breastfeeding.co.kr)의 「직장맘 젖먹이는 얘기들」이라는 게시판에 등록된 글을 분석하였다. 실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상담사례 총 8,000여 건 중 모유수유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319건이었다. 취업모의 모유수유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된 모유수유문제 유형 분석 내용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재시기와 목록을 결정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원리는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에 기초한 Dennis (1999)의 모유수유 자기효능자원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중재 방법은 성취경험으로 모유수유 수행 및 수유일지 작성하기, 대리경험으로 취업모의 모유수유 성공사례를 성공수기와 시청각 자료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언어적·시각적 모델링, 언어적 설득으로 모유수유교육과 전화 상담, 생리적·정서적 상태로 시각적 심상요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모유수유교육 책자는 산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모유수유방법에 관한 내용과 직장복귀에 대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는 취업모의 모유수유 성공사례와

직장복귀에 대비한 재교육 내용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전화 상담을 위해 「모유수유문제 유형별 피드백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취업모의 모유수유 성공수기와 시각적 심상요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모성간호학 전공 교수 1인, 산과병동 5년 이상 근무경력의 간호사 1인, 모유수유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2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된 예비프로그램을 산후 3개월 이내 직장에 복귀할 예정이며 모유수유를 할 계획인 산모 2인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중재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2) 실험처치(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

실험처치를 제공하기에 앞서 해당 병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의 목적과 진행을 해당 병동 간호사들에게 공지하였다. 연구자는 산후 24시간 이내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산모의 생리적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참여에 동의한 산모는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모유수유 성공 수기와 교육책자를 제공한 후 일반적인 모유수유관련 지식과 기술에 관해 개별 교육하고 수유방법을 시범보이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산후 2일 대상자를 재방문하여 모유수유수행 정도와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지속에 관한 내용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유수유교육을 마치기 전 「시각적 심상요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완요법을 교육 및 시행한 후 퇴원 후에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격려했다.

퇴원 후에는 산후 1주부터 직장복귀 3주 후까지 약 3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시기별로 발생하는 모유수유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산육초기 준비사항, 직장복귀 전후 준비사항, 모유수유문제 유형별 문제해결 방법으로 구성된 「모유수유문제 유형별 피드백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 2번째 전화상담 시기인 산후 4주에 맞추어 연구자가 제작한 시청각 자료(video tape)를 대상자의 집으로 발송하여 시청하도록 하였고 시청여부는 전화상담 시 확인하였다. 시청각 자료의 내용은 취업모의 모유수유 성공사례를 통한 대리경험과 출산 2일 실시한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지속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재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모유수유지속의 필요성, 직장복귀 준비, 직장복귀 후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수유일지에 매일 시행한 모유수유내용을 기록하



도록 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산후 1일 일반적인 모유수유관련 지식 및 기술에 관한 교육책자를 제공하고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24시간 이내에 인구학적 특성, 산과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모유수유관련 특성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후 2일 대상자를 방문하여 모유수유수행 정도를 조사하고, 산후 1주부터 직장복귀 후 3주까지 약 3주 간격으로 시행한 전화 상담에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 모유수유지속 정도를 전화 조사하였으며, 직장복귀 4주 후에는 모유수유지속,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을 우편 조사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와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3명으로 총 55명이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산과적, 직업적 및 모유수유관련 특성에 따른 동질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30.5세( $\pm 4.06$ ), 대조군 30.9세( $\pm 3.20$ )이었고 교육수준은 두 군 모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 유형은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유형은 두 군 모두 질식분만이 가장 많았고 직장복귀 후 계획하는 수유방법은 실험군은 모유수유 8명(36.4%), 부분모유수유 6명(27.3%), 병수유 7명(31.8%)이었고 대조군은 모유수유 4명(17.4%), 부분모유수유 13명(56.52%), 병수유 4명(17.4%)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복귀 예정 시기는 실험군은 산후 평균 83.36일

( $\pm 13.41$ ), 대조군은 84.82일( $\pm 8.64$ )로 나타났다(Table 1).

## 2.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 1) 모유수유지속에 미치는 효과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산후 2일부터 직장복귀 후 4주까지의 모유수유율과 모유수유단계 측정값을 요약한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각 시점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율은 산후 1주까지는 실험군 87.6%, 대조군 74.9% ( $t=3.15$ ,  $p=.08$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산후 4주 실험군 84.7%, 대조군 64.0% ( $t=5.37$ ,  $p=.03$ )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직장복귀 4주 후에는 실험군 76.6%, 대조군 31.0% ( $t=14.19$ ,  $p=.0003$ )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또 모유수유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인 집단 간( $F=12.82$ ,  $p=.0009$ ), 시점간( $F=11.87$ ,  $p<.0001$ ), 시점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F=7.58$ ,  $p<.0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된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율로 살펴본 모유수유지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모유수유지속 정도를 모유수유단계로 분석한 결과, 산후 2일 완전모유수유를 실천한 대상자는 실험군 12명(54.5%), 대조군 11명(47.8%)으로 당초 계획했던 수유방법에 비해 두 군 모두 높은 모유수유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험군의 경우 산후 1주 완전모유수유 실천 대상자는 16명(72.7%)으로 분만 직후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하였고 이후 산후 4주에는 14명(63.6%), 직장복귀 4주 후에는 13명(59.1%)으로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실험군의 절반 이상이 직장복귀 후에도 꾸준히 모유수유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의 경우 산후 1주 완전모유수유를 실천한 대상자 수는 7명(30.4%)으로 분만직후에 비해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산후 10주까지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6명(26.1%)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대조군의 완전 인공수유대상자 수는 산후 4주 후 1명(4.4%)이다가 직장복귀 직전인 산후 10주에는 7명(30.4%)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직장복귀 후 더욱 가속화되어 직장복귀 4주 후에는 대조군의 절반 이상인 13명(56.5%)이 완전인공수유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2)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직장복귀 4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아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Obstetric,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Breast Feeding (N=45)

Characteristics	Exp. (n=22)	Cont. (n=23)	$\chi^2/t$	p
	n (%) or Mean $\pm$ SD	n (%) or Mean $\pm$ 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30.5 $\pm$ 4.06	30.9 $\pm$ 3.20	0.34*	.74
Educational level			0.07 <sup>†</sup>	1.00
High school	5 (22.7)	6 (26.1)		
Junior college	4 (18.2)	4 (17.4)		
University	11 (50.0)	11 (47.8)		
Graduate school	2 (9.1)	2 (8.7)		
Occupation			5.65 <sup>†</sup>	.10
Clerical worker	12 (54.5)	6 (26.1)		
Civil servant	1 (4.5)	4 (17.4)		
Service worker	1 (4.5)	4 (17.4)		
Medical professional	1 (4.5)	4 (17.4)		
Educational professional	3 (13.6)	4 (17.4)		
Other professional	2 (9.2)	1 (4.3)		
Self-employed	2 (9.2)	0 (0.0)		
Monthly income (thousand won)	4,259.1 $\pm$ 1,296.0	4,202.4 $\pm$ 1,111.5	-1.50*	.14
Obstetric characteristics				
Birth type			0.30	.59
Vaginal delivery	16 (72.7)	15 (65.2)		
Cesarean section	6 (27.3)	8 (34.8)		
Gender of baby			0.20	.65
Female	12 (54.6)	11 (47.8)		
Male	10 (45.4)	12 (52.2)		
Birth weight (kg)*	3.2 $\pm$ 0.4	3.2 $\pm$ 0.4	0.09*	.93
Characteristics related to breast feeding				
Feeding plan after return to work			7.23 <sup>†</sup>	.06
Breast feeding	8 (36.4)	4 (17.4)		
Partial breast feeding	6 (27.3)	13 (56.5)		
Bottle feeding	7 (31.8)	4 (17.4)		
No plan	1 (4.5)	2 (8.7)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Maternity leave	83.4 $\pm$ 13.4	84.8 $\pm$ 8.6	0.36*	.72
Nursing room at work			-1.26 <sup>†</sup>	.22
Prepared	6 (27.3)	3 (13.0)		
None	16 (72.7)	20 (87.0)		

\*t-test; <sup>†</sup>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Comparison of Breast Feeding Rate between Two Groups at Each Time Point

(N=45)

Variables	Time	Exp. (n=22)	Cont. (n=23)	t	p	F	p
		M $\pm$ SD	M $\pm$ SD				
Breast feeding rate	pp 2 days	77.5 $\pm$ 31.2	78.3 $\pm$ 25.2	0.01	.93	Group	12.82
	pp 1 week	87.6 $\pm$ 25.0	74.9 $\pm$ 23.2	3.15	.08		
	pp 4 weeks	84.7 $\pm$ 27.3	64.0 $\pm$ 32.3	5.37	.03		
	pp 7 weeks	82.5 $\pm$ 28.9	48.2 $\pm$ 39.1	11.14	.002	Time	11.87
	pp 10 weeks	79.2 $\pm$ 31.2	43.1 $\pm$ 41.8	10.72	.002		
	pr 1 week	80.0 $\pm$ 34.6	34.6 $\pm$ 41.0	16.04	.0002	G*T	7.58
	pr 4 weeks	76.6 $\pm$ 34.3	31.0 $\pm$ 43.4	15.19	.0003		

pp=postpartum; pr=after returning to work;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Breast Feeding Level between Two Groups at Each Time Points

(N=45)

Variables	Time	Exp. (n=22)			Cont. (n=23)		
		Exclusive	Partial	Bottle	Exclusive	Partial	Bottle
		n (%)	n (%)	n (%)	n (%)	n (%)	n (%)
Level of breast feeding	pp 2 days	12 (54.5)	9 (40.9)	1 (4.6)	11 (47.8)	12 (52.2)	0 (0.0)
	pp 1 week	16 (72.7)	6 (27.3)	0 (0.0)	7 (30.4)	16 (69.6)	0 (0.0)
	pp 4 weeks	14 (63.6)	7 (31.8)	1 (4.6)	7 (30.4)	15 (65.2)	1 (4.4)
	pp 7 weeks	14 (63.6)	7 (31.8)	1 (4.6)	5 (21.7)	12 (52.2)	6 (26.1)
	pp 10 weeks	14 (63.6)	7 (31.8)	1 (4.6)	6 (26.1)	10 (43.5)	7 (30.4)
	pr 1 week	15 (68.2)	5 (22.7)	2 (9.1)	6 (26.1)	7 (30.4)	10 (43.5)
	pr 4 weeks	13 (59.1)	7 (31.8)	2 (9.1)	6 (26.1)	4 (17.4)	13 (56.5)

pp=postpartum; pr=after returning to work; Exclusive=exclusive breast feeding; Partial=partial breast feeding; Bottle=bottle feeding;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between Two Groups

(N=45)

Group	Mother-infant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M±SD	t	p	M±SD	t	p
Exp. (n=22)	3.84±0.17	-1.88	.07	4.10±0.30	-0.76	.45
Cont. (n=23)	3.69±0.34			4.02±0.4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애착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 평균 3.84점( $\pm 0.17$ ), 대조군 평균 3.69점( $\pm 0.34$ )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아애착 정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8$ ,  $p=.07$ ) (Table 4).

### 3)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직장복귀 4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민감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 평균 4.10점( $\pm 0.30$ ), 대조군 평균 4.02점( $\pm 0.46$ )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성민감성 정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76$ ,  $p=.45$ ) (Table 4).

## 논 의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모유수유지속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Taveras et al., 2003; Vogel, Hutchison, & Mitchell, 2000) 따라서 취업모가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모유수유중재 이외에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 1일부터 직장복귀 3주 후까지 취업모의 모유수유 자기효능증진을 통한 모유수유증진에 초점을 둔 간호중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직장복귀 후에도 모유수유지속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모유수유지속을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행위신념의 증진을 통해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유수유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직장복귀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장복귀 전에 이미 준비와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Zinn, 2000)이나, 어머니의 취업이 모유수유 시작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직장 복귀 후에는 취업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모유수유를 더 많이 중단하게 된다고 보고한 Ong, Yap, Li and Choo (2005)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된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모유수유지속에 효과적인 전략임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모유수유지속에 영향하는 요인으로는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 직업적 특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이외에 모유수유에 대한 확실성, 지식 및 준비와 관련된 모유수유 자신감을 들 수 있고(Hills-Bonczyk, Avery, Savik, Potter, & Duckett, 1992), 모유수유 자신감은 모유수유시작 및 수유과정 중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모유수유지속을 예측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 프로그램은 직장복귀 전뿐만 아니라 직장복귀 후에도 특별한 지지와 중재를 필요로 하는 취업모에게 모유수유지속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고 그 결과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은 모유수유와 같은 직접적인 돌봄 행위 뿐 아니라 모아애착이나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행동과 같은 모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 초기 효과적인 모아상호작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유수유증진을 통한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간호중재를 제공한 결과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선, 조사시점이 모아애착 형성 초기인 생후 4개월경으로 영아의 애착 제어체계가 조직화되기 이전이며 영아의 애착행위에 대한 모성의 감정이 발달되어가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두 군간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조사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모아애착은 임신과 출산을 거쳐 산욕초기 모아접촉을 통해 강화되며(Belsky, Gilstrap, & Robin, 1991) 모아애착형성을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아기에 대한 모성민감성은 이 시기 영아의 안정된 애착발달에 중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Han, 2002; Klaus & Kennell, 1982).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머니가 일 방향으로 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되므로 모아애착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기와 관련된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owlby는 애착발달과정에서 아기의 특성이나 모아관계에 대한 영아의 해석을 강조하여 생후 3개월까지는 무분별한 사회적 반응단계이고, 생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변별된 사회적 반응단계로 생후 초기에 비해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는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애착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Yang, 2000). 이러한 과정으로 발달된 애착은 신생아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모성 감정의 발달을 촉진시켜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하게 된다(Lodermilk & Perry, 200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애착은 애착 대상과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대상 영속성 등의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형성되는 것으로 영·유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된 모아애착은 어머니의 양육능력에 영향하여 모성민감성 발달에 기여하게 되고 그 결과 모아애착형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유수유증진을 통한 잦은 모아접촉이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사시점인 생후 4개월은 아기의 신체적, 지적, 언어적 및 정서발달이 이루어져가는 시기로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이 발달되어 가는 시기이고, 어머니 역시 모성역할을

습득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유수유는 단순한 영양물질의 공급뿐 아니라 모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발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아관계를 증진시키고 아기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럼 타인 양육 상태에서의 모아관계는 무엇보다 모아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아 상호작용의 질은 산후 초기접촉이나 모아상호노출, 모유수유를 통한 모아 간의 접촉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직장복귀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함은 모아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질적인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모성민감성을 높여 안정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임상실무에 적용한다면 취업모가 직장복귀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도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양질의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모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지속,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직장복귀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모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취업모의 상담사례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고 모유수유 자기효능자원을 중재 원리로 하여 개발된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3개 병원에서 분만한 취업모 55명(실험군 22명, 대조군 23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장복귀 3주까지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모유수유교육책자 제공 후 산후 24시간 이내에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정을 위해 모유수유율과 모유수유단계로 모유수유지속정도를 측정하였고,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  $\chi^2$ -test, 반복측정분산분석 등의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유수유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12.82$ ,  $p=.0009$ ). 또, 직장복귀 4주 후 완전모유수유를 실천하는 대상자의 수도 실험군 13명(59.1%), 대조군 6명(26.1%)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아애착 정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88$ ,  $p=.07$ ).

셋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성민감성 정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76$ ,  $p=.45$ ).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를 위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모유수유지속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모유수유지속을 통한 모아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모아애착이나 모성민감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임상실무뿐 아니라 취업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업장이나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80% 이상이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고소득 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추후 다른 집단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중재방안을 토대로 대상자의 간호요구에 적합한 중재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모유수유는 시작뿐 아니라 지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 역시 영아의 발달 및 모아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지속,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만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개념이므로 모유수유를 통한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모아애착 및 모성민감성 발달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을 포괄하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Ahn, Y. M., & Kim, M. 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neo-maternal exposure, and maternal attachment, maternal self-esteem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the mothers of NICU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798-809.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The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elsky, J., Gilstrap, B., & Robin, M.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76.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An expanded version of the Fifthieth Maudsley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19 November 1976.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Dennis, C. L. (1999). Theoretical underpinning of breastfeeding confidence: A self-efficacy framework. *Journal of Human Lactation*, 15, 195-201.
- Eiger, M. S., & Olds, S. W. (1999). *The complete book of breastfeeding*. New York, NY: Workman Publishing.
- Han, G. E. (2002).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steem and maternal sensitivity with mother-to-infan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eo, S. K. (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sin.
- Hills-Bonczyk, S., Avery, M., Savik, K., Potter, S., & Duckett, L. (1992). Women's experiences with combining breastfeeding and employment. *Journal of Nurse-Midwifery*, 35, 257-266.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of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h of process. In K. McCartney (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pp. 19-35).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Kim, Y. H., Choi, J. N., Cho, Y. R., & Ju, H. O. (2006). Comparis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breast milk in sanitary pack feeding infant's mothers and bottle feeding infant's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 NICU.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 386-397.
- Klaus, M. H., & Kennell, J. H. (1982). Parent to infant bonding, setting the record straight. *Journal of Pediatrics*, 102, 575-576.
- Kochanska, G. (1998).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80-490.
- Lee, S. Y., & Kwon, I.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 231-239.
- Lodermilk, D. L., & Perry, S. E. (2003). *Maternity Nursing* (6th ed.). St. Louis, MO: Mosby Company.
- Müller, M. E.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 to infant attach.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 129-141.

- Ong, G., Yap, M., Li, F. L., & Choo, T. B. (2005). Impact of working status on breast feeding in Singapore: Evidence from the National Breastfeeding Survey 2001.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5, 424-430.
- Shin, H. J., Park, Y. J., & Kang, H. C. (2004). Prediction model on mother-infant attachment during the early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504-514.
- Sung, M. H., & Kim, M. K. (2005). A study of the effects of behavior contact in early mother-infant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842-849.
- Symanski, M. E. (1992). Maternal-infant bonding. Prentice issues for the 1990s. *Journal of Nurse-Midwifery*, 37, s67-s73.
- Taveras, E. M., Capra, A. M., Braveman, P. A., Jensvold, N. G., Escobar, G. J., & Lieu, T. A. (2003). Clinical support and psychologic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discontinuation. *Pediatrics*, 112, 108-115.
- Taylor, L. S. (1981). Newborn feeding behavior and attaching.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6, 201-202.
- Vogel, A., Hutchison, B. L., & Mitchell, E. A.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Obstetrical and Gynecology survey*, 55, 416-417.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WHO Global data bank on breastfeeding*. Geneva: Author.
- Yang, Y. S. (2000).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nd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Yeo, J. H. (2007). Maternal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breast feeding practi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 149-156.
- Zinn, B. (2000). Supporting the employed breastfeeding mother.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45, 216-226.